



연합회장 동정

이회장, 환경부-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

이 회장은 지난 1월 11일 환경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및 기반 구축으로 ▶생태독성 평가를 위한 최적시료채취방법 및 보관기간 제시, ▶일회성 시료와 혼합시료 채취방법 및 보관기간 제시, ▶배출허용기준안 제시, ▶국내 제도도입에 따른 현행법령 개정 필요사항 제시, ▶생태독성 시험방법 초안마련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제도도입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연구결과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업체의 배출허용기준에 적용에 좀더 진지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기업의 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날 이 회장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종말처리장에 먼저 실시를 해보고 시행착오와 보완을 겸중한 뒤 일반 산업체의 적용과 비용부담의 경감, 시행시기의 년차적 입법예고 등을 입법과정에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적용의 시기와 항목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경기서부협의회

제19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경기서부협의회(회장 김현철)는 지난해 2005년 12월 21일 부천시 관내 환경기술인과 유관기관 및 협력 업체장을 모시고 제19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조촐하게 열었다. 이날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강용식 계장이 환경보존과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서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더욱 더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송년의 자리를 마감하였다. 이날 김현철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아울러 임원진도 큰 변동이 없었다.

대전충남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 및 지도점검 방향 설정 교육’ 실시



대전·충남협의회는(회장 김수형) 지난 1월



19일 금강유역 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총회 및 지도점검 방향 설명 교육’을 가졌다.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제14대 대전·충남협의회장에 김수형 (주)대승 환경엔지니어링 상무가 회장으로 선출, 인준되어 취임하였고 한국화학연구소 김기윤, 한국야쿠르트 성광호 차장이 감사로 선출되었고 각 지역별 임원이 임명되어 새롭게 2006년도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이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청, 금강환경 감시대의 지도점검 방향 교육 및 달라지는 환경 행정 설명 교육이 있었다.

경북동부협의회

제9회 정기총회 및 환경인의 밤 개최

경북동부(회장 박주영)는 지난해 12월 22일 무궁화웨딩뷔페홀에서 ‘정기총회와 환경인의 밤’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밤새 서울, 경기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교통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합회 이상호 회장이 참석해 주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 1부에는 정기총회로 2005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보고에 이어 신임회장단 선출과 주요 의안상정 등을 처리하였다. 이 날 선출된 임원진으로 회장단은 연임하였으나 감사와 이사들은 일부 변화가 있었다.

2부에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해설교육이 있었으며, 3부에는 내, 외 귀빈을 모시고 환경인의 밤 송년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념행사에서는 지역환경보전에 솔선수범하며 혁신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 경상북도지사상에는 한진기업(주) 남병기, 동방금속공업(주) 정재웅, ini스틸

(주) 박종규, 동양석판(주) 나기운 이상 4명이였으며, 포항시장표창에는 (주)레스코 유재원, 동양제철화학 윤중호, 대구지방환경청장상에는 포항강관 권태조, 동국제강 김병현, 포항성모병원 김재홍, 본 협의회장상으로는 일선마테리얼 박승희, (주)대경특수강 김민호 등이 수상하였다.



협의회 신임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신임회장단 : 회장 박주영, 수석부회장 임승수, 부회장 이진근, 사무국장 김기환, 기술이사 이지형, 홍보이사 최창원

▶ 신임감사 : 류해덕, 흥건호

▶ 신임이사 : 최길립, 최진호, 하현수, 김정만, 조배근, 김병현, 김기환, 김영한, 김태현, 이상훈, 김길성, 전금석, 김규섭으로 정해졌다.

경남협의회

‘2006년 정기총회 및 정책설명회’ 개최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1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전시장에서 2006년도 제16차



정기총회 및 정부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 1부에서는 황수남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서정윤 경남지역기술개발 센터장(창원대학교교수)의 격려사가 있었고 제2부 순서에서는 낙동강 환경감시대 최형규가 '05년도의 실적 및 사례설명과 '06년도의 중점사항 및 계획을, 경남도 환경정책과환경정책담당 김원욱 사무관이 정부환경정책과 2006년 달라지는 환경관계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3부에서는 '05년의 결산 및 '06년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였고 이어 임원선출에서 상임회장 : 하중호, 문종욱, 박규대, 황수남(이상 위촉), 회장 : 강성석(신임), 수석부회장 : 구창술(신임), 감사 : 문재룡(신임), 이승연(유임), 부회장 : 서경덕, 이인재, 이대영, 박태곤, 신도재(이상 유임)를 선출하는 등과 회칙의 일부개정을 끝으로 이어진 제4부 회원간 단합을 위한 환경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전원이 자리를 같이해 정보교류와 친목을 다졌다.

한편, 강성석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 의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명예로운 책임과 우리가 가지는 환경기술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임회장과 회장단은 모든 행사를 마치고 협의회사무실에서 갖은 좌담회에서 필요한 정보의 공유방안과 지역사회의 환경기술인으로서 경남지역의 환경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토대로 다른 환경단체와는 달리 국가가 인정한 환경기술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해 기업은 물론 경남의 환경경쟁력 재고에 최선을 다 하자는 데 의견을 통일했다.

한편, 이날의 행사에는 선진물산이 협찬(약축

방지 및 탈취전문)하였다.

울산협의회

1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울산협의회(회장 임주원)에서는 지난 1월 20일 신년 첫번째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2006년 새로 선출된 임주원 회장의 진행으로 신임 임원단의 소개와 회원들과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2006년의 사업계획 보고와 임원들의 Work-Shop결과를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주요 이슈로는 1. 월례회의 활성화 방안 : 내실 있는 회의개최, 2. 지역소모임의 활성화 : 지역이사 중심으로 활성화, 3. 협의회 사단법인 등록의 견토의, 4. 회원수첩 제작방안 등이 활발하게 토의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환경정책방향 소개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환경청 감시대의 2006년 활동내역 소개와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환경오염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차단방법이 주요한 내용으로 오염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높여 활성화 시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